

환경 보호 운동

송 명 재

한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개발실장

강 원도 영월을 지나는 동강은 영월군·정선군, 그리고 평창군 일대를 흐르는 남한강의 한 지류이다. 정선군을 흐르는 조양강이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오대천과 만나고 다시 가수리에서 동남천과 만나 동강이 된다.

동강은 백두대간의 높이 솟은 산들을 마치 뱀처럼 굽이굽이 휘감아 헤치며 한국에서 또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비경을 만들어준다. 동강 주변에는 여러 가지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사 유적지가 폭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동강에 정부에서는 댐을 건설하여 수도권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동강에 영월댐을 건설하여 일부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문화 유적을 수몰시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이 꼭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자연히 환경 단체와 크게 맞붙을 수밖에 없었고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최종적으로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환경 보호 운동이 거둔 커다란 승리였다.

우리 나라의 환경 운동가들은 환경 보존을 위한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4. 13 총선 때는

우리 나라의 정치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제 우리 사회는 환경 운동가들의 위상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정치에 참여해서 독일의 원전 산업에 영향을 끼쳤고, 미국에서도 환경 단체의 입김은 대단하다.

환경 보호는 이제 전세계적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환경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최근 수십년 동안 우리들 대부분이 물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더 귀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는 기쁨이 물질 생산 때문에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낭 여행과 캠핑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스모그나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고무 공장, 그리고 독한 냄새를 내는 화학 물질로 오염된 시냇물과 하수 등 우리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현대 물질 문명의 부산물을 지겹게 보아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환경을 방치하면서 물질 문명의 수렁에 빠져서는 안되겠다고 환경 보존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환경 운동을 하다보니까 오염 물질의 주범인 공장이 공격 대상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공장들을 운영하는 '기술' 이 환경 보존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우리는 현대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여 왔고 우리가 그 때문에 얼마나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환경 운동가들이 말하듯 현대 기술을 규탄하고 공장의 무조건 폐쇄를 요구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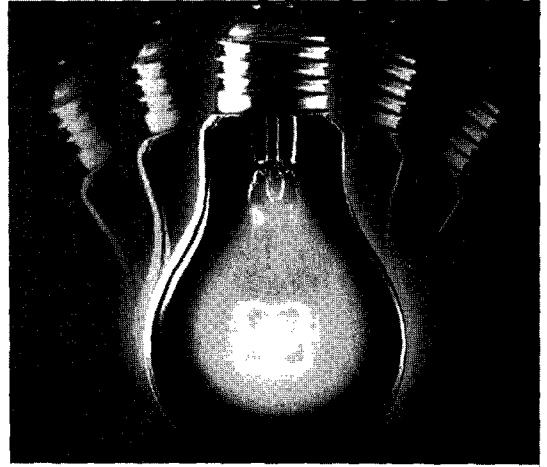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주변을 한번 조용히 둘러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현대 기술을 환경 보존의 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시내 도로변에 즐비하던 소풍이나 말뚝 냄새, 일주일 아니 한달 내내 목욕도 못해 몸에서 지독하게 풍기던 땀 냄새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다. 화장실의 오물을 밭에 거름으로 줄 때 풍기는 냄새, 시골에서 비료 대신 쓰던 두엄에서 나는 냄새는 차라리 구수한 향수를 자아내기도 한다. 냉장고는 그만 두고 아이스박스도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넉넉치 못하던 음식물이 여름에 부패했음을 알면서도 먹고 일어났던 식중독, 그리고 각종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때가 바로 엇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현대 문명의 덕택으로 더 이상 그런 고생을 하지 않고 편리한 전기, 발달된 의약품, 그리고 새로운 영농 방법으로 풍부해진 음식물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지 않은가?

아니 너무나도 발달된 문명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현대 기술의 중요성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환경 운동가들은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시



절에 비해 훨씬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산물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살충제나 살균제로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 미래에 오는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게다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은 또 어떻게 하구요?”

일반 사람들은 방사선이란 소리만 들어도 환경이 황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환경 운동가들은 이점을 가끔 교묘하게 이용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누리는 삶과 환경 보존 문제를 지혜롭게 조화시켜야 한다. 환경 보존을 구실로 우리의 편리한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아니 환경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환경 보존과 편리한 생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다른 화력 발전에 비해서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은 매우 잘 관리되고 있어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지나친 환경 운동 때문에 자칫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주는 깨끗한 에너지 자원인 원자력 발전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자면 끊임없는 홍보가 필요하다. ☞